

국 어

해설위원 : 박 우 찬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이번 15년 2차 경찰직 국어 시험은 행정직 국어와 다른 경향으로 출제되어, 그동안 행정직 국어 유형에 익숙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어사, 문장 규범, 한자와 성어, 음운과 형태소 문제가 생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15년 법원직 국어 문제와 출제 경향이 비슷해졌다. 실제 14년 법원직 문제와 유사한 현대소설(김유정의 「봄·봄」) 문제가 이번에 2문제 출제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찰직 출제 분포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영역	문법 이론	어문 규범	문학	독해와 작문	어휘
15년 2차	6	4	7	1	2
15년 1차	5	5	5	3	2
14년 2차	5	6	1	4	4
14년 1차	5	5	1	4	5

문법 이론은 그동안 음운론 1문제, 형태론 1문제, 통사론 1문제, 의미론 1문제로 고루 출제되어 왔고, 한글과 국어사가 이번에 2문제 출제되었다. 출제 경향에 근거할 때 문법 이론 부분은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문장 규범에서 고루 출제되었다. ‘한글 맞춤법’은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문장 규범도 1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선택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글 맞춤법’은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공부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문학은 출제될 문제 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학은 문학사를 포함해서 지식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찰직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문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작품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독해와 작문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하다.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화법과 작문의 기본 논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독해 영역에서 글의 전개와 진술 방식을 문제 풀이를 통해 연습을 해 두어야 한다.

어휘는 14년에 고유어와 속담이 함께 출제되기도 했으나 최근 한자와 성어만 각각 1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독음을 제시하지 않아서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그 부분은 어느 수험생들에게나 마찬가지 문제다. 한자 부수를 통해 한자 독음을 읽는 방법, 한자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경찰직 국어 기출 문제를 자주 풀어 보면서 경찰직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후에 행정직 기출 문제를 잘 소화하면 15년 3차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경찰직 기출 문제는 ‘공무원 국어 연구소’ <http://cafe.daum.net/woo-chan>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우리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현대국어에서 ‘암+개’를 ‘암개’ 대신 ‘암캐’로 적는 것은 ‘암’의 고어(古語)가 ‘암캐’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 ② 중세국어 시기에는 성조의 차이로 단어의 의미 변별이 가능했는데 현대국어에도 일부 방언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
- ③ ‘수라(임금의 진지), 보라(색채어의 일종)’는 고유어가 아니라 고려 말에 들어온 몽골말이 지금까지 쓰이는 것이다.

④ ‘황소’는 한자어 ‘황(黃)’에 고유어 ‘소’가 결합한 합성어로 어원적으로는 ‘누런 소’를 의미한다.

01. 정답 ④

<풀이>

- ④ × ‘황소’는 ‘한소>황소’에서 유래하는 고유어이다. ‘한’은 ‘큰’을 뜻하며, ‘황소’는 ‘몸집이 큰 수소’를 가리킨다.
- ① ○ 접두사 ‘암’(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은 중세 국어의 체언 ‘암캐’에서 유래한다. 암캐, 암강아지, 암탕, 암평아리, 암기와 등이 현대 국어에서 화석처럼 남아 있는 표현이다. ‘캐’는 뒷말의 첫소리 ‘브, 드, 저, 그’와 결합하여 거센소리 ‘표, 트, 처, 크’이 된다.
- ② ○ 중세 국어의 성조(소리의 높낮이)는 적어도 16세기 후반에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리의 높낮이는 소리의 길이(상성→장음)로 바뀌어 현대 국어로 이어졌는데,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에는 아직 성조의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한다.
- ③ ○ 송골매, 보라매 등 고유어처럼 인식되는 몽골말이 아직도 남아 있다.

0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ㄱ, ㄴ, ㄷ, ㄱ, ㅇ’은 각각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 ② ‘ㄴ’에 가획(加劃)의 원리를 적용하여 ‘ㄷ, ㅌ, ㄸ’을 만들었다.
- ③ 모음 자모 ‘ㅏ, ㅑ,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 ④ ‘ㄹ, ㅍ’을 살펴보면 다른 한글 자모에 쓰인 가획의 원리와 차이가 있다.

02. 정답 ②

<풀이>

- ② × ④ ○ **가획(加劃)의 원리** : 기본 글자 ‘ㄱ, ㄴ, ㄷ, ㄱ, ㅇ’에 획을 더하여 ‘ㅋ, ㄷ, ㅌ, ㅍ, ㅊ, ㅌ, ㅍ, ㅊ’을 만든 이치를 말한다. ‘ㄴ’의 가획자는 ‘ㄷ, ㅌ’이다. ‘ㄸ’은 한글의 운운원리인 ‘병서법’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로 가획자가 아니다. ‘ㄹ, ㅍ’은 이체자로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다.

발음 위치	기본자	가획자	가획자(거센소리)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ㅇ (옛이음)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반설음)
순음(脣音)	ㅁ	ㅂ	ㅍ	
치음(齒音)	ㅅ	ㅈ	ㅊ	ㅌ (반치음)
후음(喉音)	ㅇ	ㅎ (여린히음)	ㅎ	

- ① ○ **상형(象形)의 원리** : 자음 초성은 관계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습을, ‘ㅁ’은 입의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을 각각 본떴다.
- ③ ○ **상형(象形)의 원리** : 모음 중성의 기본자인 ‘ㅏ, ㅑ, ㅣ’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모양을 본떴다.

03. <보기>의 ㉠ ~ ㉣ 중 잘못된 부분을 가장 바르게 수정한 것은?

<보기>

이번에도 이렇게 결과가 난 걸 보니 ㉠ **예삿일**이 아니야. 날이 ㉡ **개** 상황을 ㉢ **분명(分明)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구름이 ㉣ **넙따랄게** 퍼져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

- ① ㉠ : [예삿일]로 발음이 되므로 사이시옷 표기 없이 ‘예삿일’로 적어야 한다.
- ② ㉡ : 어간 ‘개-’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개어’로 적어야 한다.
- ③ ㉢ : ‘분명’에 부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분명히’로 적어야 한다.
- ④ ㉣ : 단어의 의미로 보아 ‘넙(다)’이 어간이므로 ‘넙따랄게’로 적어야 한다.

03. 정답 ③

<풀이>

- ③ ○ ‘분명히’가 맞다. ‘-하다’가 붙는 어근 뒤(‘ㅅ’받침 어근은 제외)에서 [이]나 [히] 어느 쪽으로 소리 나는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히’로 적는다. 솔직히, 각별히, 소홀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나 ‘-히’는 부사파생 접미사이다.
- [참고]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① × 한자어 ‘예사(例事)’와 고유어 ‘일’이 결합하면 [예 : 산날]로 발음된다. [ㄴ-ㄴ] 첨가 현상(사잇소리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예삿일’로 적어야 한다.
- [참고] ‘**한글 맞춤법 제30항**
- ② × ‘개어’의 준말 ‘개’로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었다’는 ‘갸’로 줄일 수 있다.
- [참고] ‘**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 모음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④ × ‘넙따랄다’로 표기한다. 어간(넙-)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다랄)가 붙은 경우에도 어간 겹받침의 앞엿것만 발음되면(넙-다[넙따]), 어간과 접미사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와 같은 예로 ‘알따랄다’, ‘잘따랄다’를 들 수 있다. 반면에 ‘높-다’[넙따], ‘굵-다’[국 : 따]처럼 어간의 받침소리가 모두 실현되거나 겹받침 중 뒤엿것이 발음되면, ‘높다랄다’, ‘굵다랄다’처럼 어간과 접미사의 형태를 구분해서 적는다.
- [참고] ‘**한글 맞춤법 제21항**

04. 구조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분류할 때 <보기>에 쓰인 문장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해가 지는 장면이 무척 아름답다.

- ① 어제 진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 ② 영웅이 돌아올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 ③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장 사퇴하겠다.
- ④ 강희는 영호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04. 정답 ②

<풀이> <보기>의 문장은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해가 지-는”은 “장면”을 수식하는 동격관형절이다.
 ② O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영웅이 돌아오-ㄴ”은 “시기”를 수식하는 동격관형절이다.
 ① ×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사랑한다고”에서 조사 ‘고’는 간접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③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미래의 사실을 가정하는 어미 ‘-면’이 붙은 절이다.
 ④ ×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영호가 돌아오-기”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구성하는 명사절이다.

05.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 ① 시민 단체는 일본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 ② 이제 비로소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올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 ③ 세중에 대해 연구한 논문과 책으로만 보아도 수백 권에 이른다.
- ④ 강 교수님, 이번에 정년을 하시면서 훈장이 추서(追叙)되었다고 들었습니다.

05. 정답 ①

<풀이>
 ① O ‘에게’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 즉 유정 명사에 붙는 조사이다. ‘에’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 즉 무정 명사에 붙는 조사이다. 일본 정부는 무생물이므로 조사 ‘에’가 붙는다.
 ② ×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올리는”을 ‘서막(序幕)’을 올리는’으로 고쳐야 의미상 호응이 된다. ‘대단원(大團圓)’은 ‘어떤 일의 맨 마지막’,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뜻하는 말이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이 맞는 표현이지만,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서막을 올리는’이 적절하다.
 ③ × 서술어 “수백 권에 이른다.”에 대한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있다. 또한 “논문”이 “수백 권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논문의 단위를 세는 명사는 ‘편’이 적절하다.
 ④ × “정년을 하다”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정년(停年)’을 맞이하다’가 의미상 적절하다. 또한, “훈장이 추서(追叙)되다”는 ‘죽은 뒤에 훈장이 주어지다.’를 뜻하는 말로 살아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다. ‘훈장이 수여되다’가 적절하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방(孔方)의 자(字)는 관지(貫之)이니,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 속에 숨어 살아 아직 세상에 나와서 쓰여진 적이 없었다. 처음 황제(黃帝) 때에 조금 ㉠ **채용** 되었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는 그리 세련되지 못하였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相工)을 불러 그를 보이니, 공(工)이 한참 들여다 보고 말했다.

“이는 산야(山野)의 성질을 가져서 쓸 만한 것이 못 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조화(造化)하는 풀무와 망치를 써서 때를 굵고 빛을 낸다면 그 ㉡ **자질**이 차차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王者)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器]이 되게 하오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완고한 구리[銅]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리하여 차츰 공방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략)

방(方)의 생김새는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 응변을 잘하여, 한(漢)나라에 벼슬하여 홍로경이 되었다. 그때에 오왕(五王) 비(沸)가 ㉢ **교만**하고 주제넘어 ㉣ **권세**를 도말아 부렸는데, 방(方)이 그에게 붙여 많은 이(利)를 보았다. (중략)

그는 백성을 상대로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는 한편,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화(貨)를 중(重)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끝을 좇게 하여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를 본 간관(諫官)들이 상소(上疏)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諫)했으나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방(方)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채지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 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중략)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했다.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는 황금 백 근만 못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원제(元帝)가 위(位)에 오르자 공우(貢禹)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방(方)이 오랫동안 어려운 ㉤ **직책**을 맡아 보면서,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利)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公私)가 다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뇌물이 성행하고 ㉥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저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이니, 청컨대 그를 ㉦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라고 하였다. 그때에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곡량(穀梁)의 학문을 쌓아 ㉧ **정계**에 진출한 이가 있어, 군자(軍資)를 맡은 장수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方)의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드디어 그 말을 도우니, 임금이 이들의 말을 들어 마침내 방(方)이 쫓겨나게 되었다.
 - 임춘, 「공방전」

0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의(寓意)의 표현 방식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 ② 세상을 살아가는 임기응변의 지혜와 부정부패 척결을 일깨워주는 교훈적 성격의 글이다.
-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물의 가계와 생애 및 성품 등을 전기(傳記) 형식으로 기록한 가전체 문학이다.
- ④ 구체적 사물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그것들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교술적 성격이 있고 사물과 경험을 어떤 인물의 구체적인 생애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성격도 있다.

06. 정답 ②

<풀이>
 ② × 임춘(林椿)의 「공방전(孔方傳)」은 돈을 의인화한 작품이다. 돈의 폐단을 비판하고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임기응변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교훈적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O 우의(寓意)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한다. 의인화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을 통해 돈과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풍자하고 있다.
 ③ O 가전(假傳)이란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생애와 공과(功過)를 기록한 전기 형식을 말한다. 임춘(林椿)의 「공방전(孔方傳)」도 가전체 문학에 포함된다.
 ④ O 현실의 구체적 체험에 근거해서 포평(褒貶: 좋은 점은 칭찬하고 나쁜 점은 비판함)의식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교술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의인화된 사물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엮어간다는 점에서 소설에 접근한 서사적 문학 양식으로 평가된다.

07. 윗글의 문맥을 고려할 때 ㉠ ~ ㉥ 중 괄호 안의 한자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채용(採用), ㉡ 자질(資質)
- ② ㉢ 교만(驕慢), ㉣ 권세(權勢)
- ③ ㉤ 직책(職責), ㉥ 청탁(請託)
- ④ ㉦ 면직(勉職), ㉧ 정계(政戒)

07. 정답 ④

<풀이> ④ × ‘일정한 직무나 직무에서 물려나게 함.’을 뜻하는 “면직”은 免(면할 면)과 職(벼슬 직)이 맞다. ‘정치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조직체나 개인의 활동 분야’를 뜻하는 “정계”는 政(정치 정)과 界(경계 계)가 맞다. 勉(힘쓸 면), 戒(조심할 계)

※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인님! 인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굽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은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 /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고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 미처 못 자랐단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도 모른다. 일을 좀더 잘 해야 한단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단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

(나)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수 지저 주고, 호주머니에 히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울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아! 아! 이놈아! 놈아,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술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놀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 주리라 생각하고 짓곳이 더 덩겼다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아, 놈, 놈, 놈...”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라)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험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덩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마)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였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양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 김유정, 「봄·봄」

08.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인물 간의 갈등과 결말 구성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내적 고백과 인물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③ 어리숙한 희극적 인물과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쉽게 해결하고 있다.
- ④ 서술자인 주인공 ‘나’가 인물과 사건을 직접 설명하면서 자신이 장인과 겪은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08. 정답 ①

<풀이>

① O 김유정(金裕貞)의 「봄·봄」은 농촌을 배경으로 미래의 대를사위와 장인이 혼인 문제를 두고 벌이는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점순이의 부추임을 받은 어리숙한 ‘나’는 결국 장인과 대판 몸싸움을 벌이고, 자신의 편을 들 줄 알았던 점순이는 아버지의 편을 든다. 장인과 다투다 장인에게 흠씬 맞은 ‘나’를 장인이 가늘게 혼례를 올려 준다며 다독이자, 신이 난 ‘나’는 다시 일하러 간다. 이런 인물 간 갈등과 결말 구성에서 해학적 분위기가 잘 나타난다.

② X 인물의 내면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심리주의 소설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의식의 추이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상의 소설 「날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③ X 하루 빨리 점순과 성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나’와, 점순이 어리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루는 ‘장인’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어리숙한 ‘나’는 결국 갈등의 원인이었던 혼례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④ X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서술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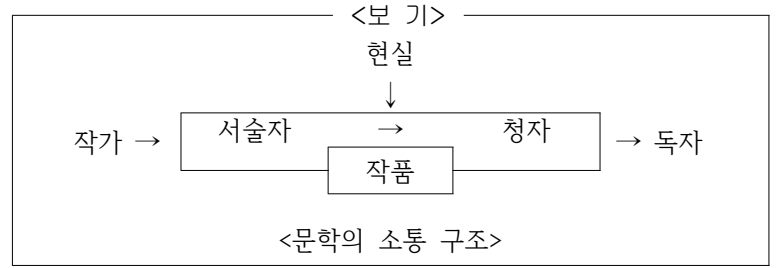
09. 윗글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 → (가) → (다) → (라) → (나)
- ② (마) → (다) → (라) → (나) → (가)
- ③ (가) → (마) → (다) → (라) → (나)
- ④ (가) → (다) → (라) → (마) → (나)

09. 정답 ④

<풀이> (가)는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므로 가장 먼저 올 수 있다. (나)는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으로 결말에 해당한다. (나)의 첫 문장 구절인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에서 (나) 앞에 (마)가 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에서 ‘나’가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자, (라)에서 점순이가 아버지 편을 들게 된다. 점순이의 예상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마)에서 ‘나’는 멍하니 서서 장인의 지게 막대기를 맞게 된다.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하층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 ② 작가 김유정은 강원도가 고향이야. 그래서 ‘짜증, 안죽’ 등의 토속적 어휘와 사투리를 사용해 향토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켰어.
- ③ ‘나’와 장인의 갈등, 점순이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한 상황 반전, 절정을 결말에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 등은 작품의 해학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 ④ ‘나’와 장인이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에 욕심 많은 장인이 앞으로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

10. 정답 ②

<풀이> ‘표현론적 관점’은 문학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이 표현된 예술로 보는 관점이다. 작품에 작가의 창작 의도, 체험, 사상,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즉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검토한다. ②에서 작가의 고향과 문체를 관련지어 비평하고 있으므로, ②의 관점이 표현론적 관점이다.

① 반영론적 관점: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와 작품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③ 작품 내재적 관점: 갈등구조, 소설의 구성, 미적 특성 등 작품의 내적 요소를 비평하고 있다.

④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琉璃)에 ㉠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 **물 먹은 벌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려갔구나

정지용, 「유리창」

11. 위의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이 저문다. / 노을이 잠긴다. /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 애가 앓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 김광균, 「은수저」

- ② 판잣집 유리 딱지에 / 아이들 얼굴이 /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내려 쪼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 나도 돌아선다. /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 구상, 「초도의 시」

- ③ 너는 / 어디로 갔느냐. /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 형님! /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 다만 여기는 / 열매가 떨어지면 /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下棺)」

- ④ 하늘에 깔아 놓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 속삭이듯 서걱이는 /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 두 놈이 부리를 /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 따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 박남수, 「새」

11. 정답 ①

<풀이> 제시문의 시에서는 유리창을 닦는 상황을 통해 ‘아이를 잃은 슬픔과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김광균의 「은수저」에서도 저녁 밥상이 앞에 놓인 상황이 제시되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과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다.

② 시적 화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후반부에서 비극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③ 아유를 잃은 슬픔과 아유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

④ 인간의 문명과 대비되는 자연의 순수함을 노래하고 있다.

10. <보기>는 문학의 소통 구조이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

12. 다음 ㉠ ~ ㉣ 중 그 비유적 표현의 의미가 가장 다른 것은?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2. 정답 ④

<풀이> ㉠㉡㉢이 죽은 아이를 비유적으로 가리킨다면, ㉡은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 차고 슬픈 것: 죽은 아이
㉡ 언 날개: 임금이 사라지려 함, 아이의 마지막 모습
㉢ 물 먹은 별: 눈물이 고인 채 바라본 별, 죽은 아이
㉣ 유리를 닦는 것: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유리창'은 죽은 아이가 있는 방(죽음)의 세계와 화자가 있는 방 안(삶)의 세계를 단절하면서도 죽은 아이를 잠시 동안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13. 1960년대 문학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기 계급문학과 모더니즘 문학, 그리고 새로이 순수 문학파가 대두되면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고, 작품 경향도 기존의 역사, 정치, 사회, 이념 등을 다루던 데에서 나아가 일상, 개인의 내면과 욕망, 여성 등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 ② 이 시기 소설은 황순원, 안수길 같은 남성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으며, 「무진기행」의 김승옥, 「병신과 머저리」의 이청준, 서정인, 박태순 등 지식인의 세련된 감수성과 언어 구사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 ③ 이 시기 시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현실 참여시와 언어의 예술성과 기교를 바탕으로 전통적 서정을 노래하는 순수 서정시가 양대 산맥을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 ④ 이 시기 문학은 4·19 혁명, 5·16 군사 정변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삶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다.

13. 정답 ①

〈풀이〉 ①은 1930년대 문학의 경향을 보여준다. 1930년대는 강화된 사상 검열로 현실 비판적인 문학 창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산주의 운동도 전면 금지되어 만주사변이 일어난 해에 카프(KAPF) 제1차 검거, 1934년에 카프 제2차 검거가 있었고, 1935년에 카프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 유학생을 통해 서구의 현대사조가 유입되면서, 정치주의와 이념주의에서 벗어나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이 시기의 문학은 순수문학, 다양한 기법을 실험한 모더니즘 문학, 생명 탐구의 문학, 자연 탐구의 문학 등을 지향하게 된다.

<보기>

경찰은 수사를 할 때 피해자나 피의자의 말만 듣고 쉽게

- ㉠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 을(를) 가려내고자 하는 ㉢ 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 | ䷄ | ䷒ | ䷌ |
|---|------|------|------|
| ① | 易地思之 | 玉石混淆 | 指東指西 |
| ② | 左衝右突 | 明若觀火 | 先憂後樂 |
| ③ | 附和雷同 | 是是非非 | 無偏無黨 |
| ④ | 優柔不斷 | 人之常情 | 自中之亂 |

14. 정답 ③

<풀이> 경찰은 한쪽 편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부화뇌동(附和雷同)’이 맞다. 부화뇌동(附和雷同)은 ‘շ뛼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맞다. 시시비비(是是非非)는 ‘옳고 그름’을 뜻한다. 결국 경찰은 공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편무당(無偏無黨)’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무편무당(無偏無黨)은 ‘불편무당(不偏不黨)’과 비슷한 뜻으로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 기>

이런 증세에는 이 약을 **쓰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 ①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만 먹겠다고 생떼를 **쓰다**.
 ② 선산에 자신의 묘를 **써** 달라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다.
 ③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예 소설을 **쓰고** 있었다.
 ④ 아이는 추운지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누웠다.

18. 정답 ①

<폴이> 말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들을 동음어라 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同音異義關係)라 한다. 하나의 말소리에 서로 관련 있는 여러 의미가 결합된

- ① 다의 관계. ‘쓰다’는 (무엇을 이용하여) ‘합당치 못한 일을 강하게 요구하다.’는 뜻을 지닌다.
- ①의 ‘쓰다’는 <보기>의 ‘쓰다’와 일정한 의미 연관이 있으므로 <보기>의 ‘쓰다’와 다의 관계에 있다.
- ② 동음이의 관계.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
- ③ 동음이의 관계.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혹은 이와 유사한 대상 따위에 글로 나타내다.
- ④ 동음이의 관계.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여쓰다.

19. <보기>의 ㉠ ~ ㉤ 중에서 띄어쓰기의 수정이 잘못된 것은?

<보 기>

알고 계신 ㉠ 바와같이 이번 대회를 ㉡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니 이제는 다음 대회가 어디서 ㉢ 개최될지 궁금하네요. 항상 그랬지만 이번 ㉣ 대회 만큼은 더욱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① ㄱ 바와 같이 ② ㄴ 준비하는 데
③ ㄷ 개최될 지 ④ ㄹ 대회만큼

19. 정답 ③

 $\langle H|0\rangle$

③ × 의문을 표시하면서 뒤에 판단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따라오므로 ‘개최될지’가 맞다. 막연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뒤에 이어질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경우에는 어미(=는지/ㄴ지, -을지/ㄹ지)가 여간과 결합한 구성이므로 붙여 쓴다. 이와 달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즉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ㄴ’ 뒤에 의존격사가 문 구성이므로 띄어 쓴다.

예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① ○ 바(의존명사)와(조사) ∨ 같이(부사)
 ② ○ 준비하는 ∨ (대일). ‘대’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하는) ① ‘곳’이나 ‘장소’, ② ‘일’이나 ‘것’, ③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④ ○ 대화(명사)만큼(조사). ‘만큼’은 앞에 체언이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20. 우리말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경복궁 - Gyeongbokgung
② 독립문 - Dongnipmun
③ 집현전 - Jiphyeonjeon
④ 속리산 - Songnisan

20. 정답 ②

<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비음화에 의해 ‘독립문’은 [독립문→동님문]으로 발음되고 고유 명사이므로, ‘Dongnimmun’으로 표기한다.